

名前:

최근에는 다제익 문제처럼 인터넷이  
사람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 
되었습니다.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에도  
별표를 할 때에도 회사에서 일을 할  
때에도 인터넷이 없으면 곤란해져 버립  
니다. 사회인이라면 인터넷이 없으면 생  
활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.  
하지만, 그렇게 인터넷이 사회 생활에  
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신문과 잡  
지는 '필요 없어.'라고 말할 수 있는 것  
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 
먼저, '이제 문자는 필요 없어!'라고 말  
한 사람은 신문과 잡지의 기능을 단지  
'뉴스를 전달하는 것' 뿐이라고 생각하  
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인터넷 뉴스보다  
신문 뉴스의 장점은 현대의 문제를 좀  
더 깊게 생각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 
것입니다. 인터넷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 
것은 스피드이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도  
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흥미

의 목적이어서 단지 사건과 한문장의  
기사를 쓰는 것도 많습니다.  
영상도 보기 쉽고 재미있게 볼 수  
있는 것은 당연합니다. 하지만 최근의  
사람들은 인터넷과 TV와 같은 영상의  
타오르는 즐거움이라는 한 면만을 보고  
있는 것 같습니다. 세계는 점점 더 복잡  
해지고 있습니다. 사람의 생각의 폭도  
넓아지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 
까요?  
즐거움도 좋지만 한때와 같은 복잡한  
세계에서는 한 면만이 아니라, 여러면을  
보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 
생각합니다. 그리고  
시각화와 영상에 밀려 인위와  
역사적인 문자가 사라지는 것은 있을  
수 없습니다..